

〈도술가(兜率歌)〉의 주술(呪術) 방식에 대한 일고

박재민*

차 례

1. 서론
 2. 본론 - 가능성의 검토
 - 2.1. 일괴즉멸(日怪卽滅)의 서사 문맥 검토
 - 2.2. 재언명(再言明)의 개연성 검토
 - 2.3. 미륵과 해의 불가적(佛家的) 인식 측면
 - 2.4. '호명 - 명령'계 주술가가 지닌 구조적 측면
 3.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본고는 월명사의 〈도술가〉의 배경설화를 살펴 이 노래가 지닌 주술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작품은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해'라는 변괴를 해결하기 위해 불린 노래이다. 배경 설화에 따르면 이 노래가 불리자 하늘의 변괴가 사라진다. 기존의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 노래를 '주술성을 띤'의 대표적 노래로 간주하고, 주술의 연원을 〈구지가〉 등의 전통적 주술에서만 찾아 왔다. 주술의 매개 대상을 부른 후 명령하는 방식에 주목한 것이었다.

본고는 〈도술가〉의 문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이 작품의 주술성은 〈구지가〉 식 주술 방식 외에 〈혜성가〉 식 재언명(再言明) 주술에 의해서도 성취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 노래는, 하늘에 추가적으로 나타난 해는 '재앙이 닥치려는 불길한 조짐'이 아니라, '미륵불이 하생하려는 길(吉)한 조짐'이라고 재언명하며 그 미륵불을 맞이함으로써 화(禍)를 복(福)으로 바꾼 노래로 추론하였다.

이를 〈혜성가〉와 이 노래가 지닌 강한 상황적 친연성들을 활용하여 구체화하였다. 〈혜성가〉에는 '불길한 혜성'을 보고 '저것은 길 쓸 별'이라고 칭하는 '재언명의 주술'이 보이는데, 〈도술가〉 또한 '불길한 해'를 보고 '저것은 미륵좌주'라고 칭하고 있는바 이 둘은 동일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한 궤의 주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외, 꿈 해몽 등에서 보이는 재언명 주술도 하나의 방증으로 삼았다. 결국 <도술가>는 ‘이일병현(二日並現)’이라는 위기 상황을 ‘미륵이 하 생활 조짐’으로 재언명하여 해의 괴변 및 신라 사회의 위기감을 잠재운 주술의 노래라고 하겠다.

주제어 : 도술가, 해성가, 해성, 주술, 재언명, 월명사, 용천사

1. 서론

월명사(月明師)의 <도술가(兜率歌)>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에 다음과 같은 배경 설화 속에 실려 전하는 4구체 향가이다.

경덕왕 19년(760년) 경자 4월 1일, **㉠ 두 개의 해가 함께 나타나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二日並現 浹旬不滅]**,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散花功德)을 행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조원전(朝元殿)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왕은 청양루(靑陽樓)에 행차하여 인연이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 이때에 월명사가 천맥사(阡陌寺)의 남쪽 길을 가고 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오게 하여 단을 열고 계문(啓文)을 짓게 하였다.

월명사가 아뢰었다. “신승은 단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하여 향가만 알 뿐이고 성범(聲梵)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뽑혔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다.”고 하였다. **㉡ 월명사가 이에 <도술가>를 지어 읊었다[明乃作兜率歌賦]**. 그 노랫말은 이렇다.

오늘 여기서 산화가 불러	今日此矣散花唱良
돈위 올린 꽃아!	巴寶白乎隱花良汝隱
너는 곧은 마음의 명 부려서	直等隱心音矣命叱使
미륵불을 모셔라!	弥勒座主陪立羅良

풀이하면 이렇다.

龍樓此日散花歌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挑送青雲一片花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殷重直心之所使	은근하고 중한 곧은 마음의 시킨 바이니
遠邀兜率大僊家	멀리서 오는 도솔천의 부처님을 맞이하라.

지금 세상에서 이를 <산화가(散花歌)>라고 부르는데 잘못이다. 마땅히 <도술가>라 해야 한다. 따로 <산화가>가 있으나 글이 번잡하여 실지 않는다.

③ 노래를 마치자 해의 괴변이 곧 사라졌다.〔**既而日怪即滅**〕 왕이 가상히 여겨 좋은 차 한 봉과 수정 염주 108개를 하사하였다. **④ 문득 한 동자가 있어**〔**忽有一童子**〕 외양이 곱고 깨끗하였는데 무릎을 꿇고 차와 염주를 받들고 전각의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사는 내궁(內宮)의 사자라고 하였고 왕은 월명사의 시종이라고 여겼으나 곧 알아보니 둘 다 아니었다. 왕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쫓아가게 하니 **⑤ 동자는 내원의 탑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 벽화의 미륵보살상 앞에 있었다**〔**童入內院塔中而隱，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이로 **⑥ 월명사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능히 지성(至聖)께 밝게 닿을 수 있음(能昭假于至聖)**을 알았다. 조정과 민간에서 이 일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술가)¹⁾

배경 설화에 따르면 이 노래는 경덕왕 19년(760년) 하늘에 나타난 변괴(二日並現,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남)를 물리치기 위해 왕의 명을 받은

1) 月明師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挾[挾]句不滅. 日官奏請, “緣僧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駕幸青陽樓望緣僧. 時有月明師行于阡陌寺之南路, 王使召之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不閑聲梵.” 王曰, “既卜緣僧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弥勒座主陪立羅良. 解曰,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青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兜率大僊家. 今俗謂此爲散花歌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既而日怪即滅. 王嘉之賜品茶一襲水精念珠百八箇. 忽有一童子儀形鮮潔, 跪奉茶珠從殿西小門而出. 明謂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玄微而俱非. 王甚異之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知明之至德與至誠能昭假于至聖也. 如此朝野莫不聞知. (『三國遺事』卷5, 「月明師 兜率歌」)

월명사가 지은 향가로, 노래를 부르자 하늘의 변괴가 사라지고 미륵불이 궁궐로 강림하여 탑과 미륵보살상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에 기반하여 우리는 이 작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잡고 있다.

日怪를 禳키 爲하야 彌勒佛을 邀致하는 노래²⁾

現實國土에 息災享福을 念願하는 … 儀式을 進行하기 위한 請佛·邀佛로서의 兜率歌는 彌勒世尊을 모시는 노래³⁾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으니 〈兜率歌〉를 지어 불러 태양의 변괴를 사라지게 했던 呪術⁴⁾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이 노래의 개요는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도술가〉는 확실히 ‘하늘에 나타난 이일병현(二日竝現)의 변괴를 해소하려 미륵불을 맞이하는 주술성을 내포한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별 쟁점이 없을 것 같은 이 주술의 노래는, ‘해’와 ‘미륵불’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통설과는 전혀 다르게 파악될 일면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통설은 ‘해’와 ‘미륵불’은 서로 다른 두 존재라는 관점에 서서, ‘새로 나타난 해는 흉조(凶兆)’이고 월명사가 맞이하려는 미륵불은 ‘이 해를 쫓아줄 주체’로 설정하고 있음을 본다. 즉, 다음과 같이 주체와 객체로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월명사가 행한 의식은 일종의 “쫓아버리는 祭儀”⁵⁾

2)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65), 24면.

3) 김동욱, 「兜率歌研究」, 『國語歌謠의 研究』(乙酉文化社, 1961), 40~41면.

4) 정상균, 「도술가 연구」, 『한국고전시가작품론』 권1(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刊, 집문당, 1992), 73면.

5) 정상균, 앞의 책, 77면.

兜率歌는 彌勒座主의 위대한 힘으로 二日並現이라는 現世의 災難을 消滅시키고자 한 신라의 呪術祈願歌라 할 것이다.⁶⁾

천체 이변의 불양을 위해 산화공덕의 의식을 거행할 때 월명사가 지은 작품이다. … 혹시 닳칠지도 모를 채역을 털어내기 위해 미륵불을 이곳으로 모셔오라고 꽃에게 명령하는 것이다.⁷⁾

불국토의 나라인 신라에, 불길한 하늘의 기운이 나타났으니, 이 변화가 현실적인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미륵이 속히 이 땅에 하생하여 악귀가 만들어내는 이 혼돈과 불안을 잠재우는 영험을 베풀어 도술천의 이상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노래)⁸⁾

그러나 ‘미륵불은 구세주로서 해를 없앨 주체 - 해는 흉조(凶兆)로서 없애지는 객체’로 보는 이분법적인 통설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해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왕이나 일반적인 민중들이 그것을 흉조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설화의 문면에서 볼 때 정작 주술을 행한 주체인 ‘월명사’는 해를 ‘불길한 것’으로 간주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도술가>와 한시를 통해서 볼 때 그는 ‘두 개의 해가 뜬 하늘을 향해 꽃을 뿌리며 미륵불을 맞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설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월명사가 모시고자 하는 ‘미륵’이 어찌면 하늘에 새로 나타난 ‘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강하게 감지된다.

그것은 <도술가>의 노랫말을 볼 때 우선 감지된다. 노랫말 “오늘 여기서 산화가 불러 돋워 올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 부려서 미륵불을 모셔라!”에서 그가 맞이하려는 것이 미륵불임이 보인다. 그런데 미륵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미륵이 현세에 나타날 때는 주로 ‘광명(光明)’을 지니고 오는 경

6) 장진호, 『도술가고』, 『어문학』 통권 50호(한국어문학회, 1989), 274면.

7)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고전문학연구』 제26집(한국고전문학회, 2004), 197면.

8) 황병익, 『신라향가 천년의 소망』(역락, 2020), 432면.

우가 많다. 더구나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 등에서 미륵은 ‘해’로 은유되어 표현⁹⁾되기도 한다. 이렇다면 월명사가 <도솔가>를 부르며 꽃을 보내 맞이하려는 것은 반드시 ‘먼 곳 도솔천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륵’으로 고정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재 하늘에 해의 모습으로 나타난 미륵’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크기로 남게 된다.

이런 가능성은 위에 인용된 기사의 서술축을 보면 보다 커진다. 기사의 서술축은 “① 해가 하나 더 등장(二日並現) → ② 미륵불을 맞이하라는 노래를 부름(兜率歌 歌唱) → ③ 하늘의 해 하나가 즉시 사라짐(日怪卽滅) → ④ 미륵불의 현신이 궁중에 출현함(童子出現)”으로 요약되는데, 진하게 칠한 해를 모두 미륵불로 치환해서 보면 ‘미륵불(=해)가 나타남 → 미륵불(=해)을 맞이하라는 노래를 부름 → 하늘의 미륵불(=해)이 즉시 사라짐 → 미륵불의 현신이 궁중에 출현함’이 되어 “<도솔가>는, 해의 모습으로 나타난 미륵불을 맞이한 노래”로 보아도 전혀 위화감 없는 서사축이 형성됨을 보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가능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 - 하늘의 변괴를 길(吉)한 조짐으로 재언명(再言明)하여 해소함 - 은 대표적인 주술 향가인 <혜성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¹⁰⁾ 이 점에서 본고는 이 노래가 <혜성가>와 마찬가지로의 주술 메커니즘을 지닌 노래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즉, 용천사(融天師)가 <혜성가>를 통해서 그랬듯이 월명사 또한 <도솔가>를 통하여 하늘에 새로이 나타난 해를, ‘변괴’가 아니라 ‘하생하려는 미륵불’로 긍정적으로 재언명(再言明)함으로써, 당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福)을 부르려고 했던 노래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다.

9) “佛日出時 佛日出世”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후술한다.

10) 주지하다사피 <혜성가>에서는 ‘하늘의 변괴인 혜성’을 ‘길 쓸 별’로 재언명(再言明)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이 점이 <도솔가>의 재언명과 매우 흡사함을 본다. 후술한다.

2. 가능성의 검토

2.1. '일괴즉멸(日怪卽滅)'의 서사 문맥 검토

필자는 월명사의 <도술가>가 '미륵불을 모심으로써 하늘의 변괴를 없애고자 한 주술가'라는 통설에 동의한다. 그러나 주술(呪術)의 구동 원리에 대한 세부적 이해는 통설과 전혀 달리하고자 한다. 현재 학계의 통설은 '도술천에 있는 미륵을 불러 내려 그의 불력(佛力)에 힘입어 해의 변괴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필자는 '하늘의 해 자체가 미륵이고 그 해를 맞이함으로써 하늘의 변괴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려 한다. 즉 통설은 변괴를 없애는 단계가 '노래를 통한 미륵불의 하생(下生) → 미륵불의 불력 행사(行使)를 통한 변괴 해결'의 두 단계라는 것이고, 본고의 경우는 '해가 미륵이므로 노래를 통한 미륵의 하생(下生) 자체가 바로 변괴 해결'이라는 것이다.

이 두 시각은 <도술가> 배경 설화의 전반부만 보자면 모두 성립된다. 하늘의 변괴가 생겨나자 부른 노랫말이 "오늘 여기서 산화가 불러 돋워 올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 부려서 미륵불을 모셔라!"인데 꽃을 보내 미륵불을 맞이한다는 말은 통설처럼 '꽃을 도술천까지 보내 그곳의 미륵불을 맞이한다'로 보아도 되고, 본고처럼 '꽃을 하늘로 보내 그곳에 나타난 미륵불[해]을 맞이한다'로 보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술가>에 나타난 '꽃으로 미륵불을 모시는 행위'가 미륵을 맞이할 때의 일반적인 의식임을 확인하기 위해, 꽃으로 미륵불을 맞이하던 불경 속의 내용만 인용해 둔다.

계승을 읊고 미륵불이 묵묵히 앉아 있을 때, 모든 하늘과 용, 귀신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네 가지 꽃비를 뿌려 미륵불을 공양할 것이다.(說此偈已默而住, 時諸天, 龍, 鬼神王不現其身, 而雨天花供養於佛)¹¹⁾

11) 경전연구모임, 『미륵대성불경』,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대성불경』(불교시대사, 1996), 83면.

미륵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수많은 백천만 억의 하늘남자와 하늘여인, 대법천의 왕들이 하늘궁전을 타고 와서 하늘꽃과 하늘향을 미륵불께 바치고, 미륵불을 백 천 바퀴 돌고,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 합장하고, 미륵불께 설법을 청할 것이다.(說是語時, 復有他方無數百千萬億 天子天女 大梵天王 乘天宮殿, 持天花香奉獻如來, 繞百千匝, 五體投地合掌勸請)¹²⁾

그런데 큰 문제 없던 전반부에 비해, 노래가 불린 직후의 후반부 서사 문맥은 기존 통설로 설명하려 할 경우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노래 직후 이어지는 서사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자.

③ 노래를 마치자 해의 괴변이 곧 사라졌다.[既而日怪即滅] 왕이 가상히 여겨 좋은 차 한 봉과 수정 염주 108개를 하사하였다. **④ 문득 한 동자가 있어** 외양이 곱고 깨끗하였는데 무릎을 꿇고 차와 염주를 받들고 전각의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사는 내궁(內宮)의 사자라고 하였고 왕은 월명사의 시종이라고 여겼으나 곧 알아보니 둘 다 아니었다. 왕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쫓아가게 하니 **⑤ 동자는 내원의 탑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 벽화의 미륵보살상 앞에 있었다[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a) 이로 **⑥ 월명사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능히 부처[至聖]께 밝게 닿을 수 있음[能昭假于至聖]**을 알았다. 조정과 민간에서 이 일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솔가>

본고가 ‘비약적’이라고 보는 곳은 바로 ③부분 “노래를 마치자 해의 괴변이 곧 사라졌다”라는 구절이다. 이 부분은 기존의 통설 - 미륵의 하생 후 그의 불력(佛力)에 의해 문제 해결 - 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곳이 된다. 왜냐하면 통설의 입장에서 ‘변괴’는 ‘미륵불이 불력에 의해 퇴치해야 하는 것’인데, 배경 설화의 서사축은 아직 ‘미륵불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기 때문이다. 통설의 단계라면 노래가 끝난 ③부분에는 ‘(그 노래를 듣고) 미륵불이 도솔전에서 내

12) 경전연구모임, 앞의 책, 85면.

려움, 자리를 잡음' 등을 시사하는 화소(話素)가 간략하게라도 와야 하고 그 후 불력의 행사에 의한 '일괴즉멸(日怪卽滅)'이 와야 하는 것이다. 즉, [3] 일괴즉멸'의 내용은, [4] 미륵의 출현'을 거치고 [5] 미륵의 자리 잡음'이 완료된 후, ([a]) 지점에 정도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순편한 것이다.

그러나 배경 설화는 '노래가 끝나자 바로 일괴가 즉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하늘의 변괴는 '도술천에서 내려온 미륵불의 불력을 행사'하여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 퍼진 <도술가>의 주력(呪力)'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말해주는 간결한 정황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월명사가 <도술가>로써 하늘의 해를 '미륵불'로 칭하며 그 해를 초치(招致)하여 하생(下生)케 했기에 '노래 후, 일괴가 즉멸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후의 서사 또한 이러한 독법을 뒷받침해 준다. 이어지는 내용은 일괴가 사라지자마자 어린 동자 한 명이 궁궐에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고는 이를 '월명사의 노래가 불리자마자 미륵으로 지목된 해가 바로 감응하여 하생하였고(그러니까 일괴는 즉멸한 것임), 하생한 미륵은 동자로 현신하였음을 알려주는 서사로 이해하려 한다. 결국 <도술가>는 "하늘에 나타난 해를 미륵불로 재언명(再言明)하며 하계로 모신 노래"로 가정되는 것이다.

2.2. 재언명(再言明)의 개연성 검토

위에서 우리는 서사 문맥적 관점을 기준으로 월명사가 '새로 나타난 해'를 '미륵'으로 간주하여 그 해를 맞이한 노래가 <도술가>일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노래가 끝나자 해의 변괴가 즉시 사라졌다'는 문맥의 비약은 해소되지만, 여전히 해명을 요하는 곳도 생겨난다. 그 질문의 핵심은 아마 "지나치게 경직된 독법이 아닌가. 서사 문맥에서의 화소 생략은 혼한 일인바, 하생과 불력 행사 부분은 임의로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월명사가 '해'를 '미륵좌주'로 재언명(再言明)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해석일 뿐이다." 정도로 예상된다. 물론 '재언명'의

필연적'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월명사가 하늘에 나타난 '불길한 조짐의 해'를 '좋은 조짐의 미륵불'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의 필연에 가까운 '강한 개연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신라의 주술적 상황을 담고 있는 역사서의 페이지들에는 '두려운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재언명'함으로써 '전화위복(轉禍爲福)'하던 일화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월명사 역시 '두려운 상황의 해결을 위임 받은 주체'였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두 가지 주술 텍스트를 통해 개연성을 검토해 보자.

2.2.1. <혜성가>의 '재언명' 사례로 본 개연성

월명사가 '새로 나타난 해'를 '불길한 조짐'으로 해석하지 않고 '미륵좌주'로 재언명했을 강한 개연성은 <도술가>와 거의 쌍둥이 같은 구성을 지닌 <혜성가>의 배경 설화 및 노랫말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제5 거열랑(居烈郎), 제6 실처랑(實處郎), 제7 보동랑(寶同郎) 등 화랑의 무리 세 사람이 풍악(楓岳)에 놀러 가려는데 ①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했다. 그래서 낭도들은 이를 의아히 여겨 그 여행을 중지하려 했다. ② 그때 용천사(融天師)가 ③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불렀더니 ④별의 괴변은 즉시 없어지고 일본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경사가 되었으니, 임금은 기뻐하며 낭도들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놀게 하였다.¹³⁾ <삼국유사 권5, 용천사 혜성가>

<혜성가>는 위와 같은 짧은 서사 맥락을 지니고 있는 주술적 향가로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도술가>와의 정황적 상동성(相同性)에 주목해 왔다. 요약적으로 제시된 언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 第七寶同郎 等三花之徒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即滅, 日奔兵還國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삼국유사 권5>

(도술가는)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條의 「彗星犯心大星→時天師作歌
歌之→星怪即滅」과 같은 「천문상의 괴변→노래 지어 부름 → 괴변 사라짐(二
日並現→ 明乃作兜率歌賦之→ 既而日怪即滅)」의 서사구조를 이룬다.¹⁴⁾

위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도술가>와 <혜성가>를 둘러싼 서사 정황
은 완전히 일치한다. ①부분, '하늘의 변괴'¹⁵⁾라는 문제 상황이 동일하고, ②
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술 주체의 성격'이 동일¹⁶⁾하고, ③부분 '노래
를 통해 해결을 꾀함'이 동일하고, ④부분 '주술의 결과' 또한 동일¹⁷⁾하기 때
문이다.

14) 이도흠, 「도술가와 화염사상」, 『한국학논집』 제14집(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98면.

15) '혜성이 심대성을 범한 것 = 하늘에 또 다른 해가 나타남'은 '하늘의 변괴'라는 공통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도술가>에 나타난 '이일병현'의 상황을 '자연의 변괴'가 아닌, '정치적 대립을 은유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많지만, 정치적 대립은 그러한 현상이 암시하는 미래의 일들이지, 이일병현의 원관념은 아니다. 이일병현의 원관념은 기본적으로는 '하늘에 발생한 자연 변괴'이다. 즉, "하늘에 자연 변괴가 발생함 - 이일병현으로 표현됨 - 곧 정치적 대립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짐"의 순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도술가> 이일병현에 관련해서 경덕왕대에 기록된 이일병현은 '헬리혜성'일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래 서영교(「월명사 도술가와 헬리혜성」, 『九山論集』 제9집, 보조사상연구원, 2004)는 경덕왕 19년(760년) 4월 1일로 기록된 천체 이상 현상은 760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었던 헬리 혜성에 대한 기록일 것으로 단언한 바 있다. 그가 든 두 기록 "조원 3년(760년) 4월 정사.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乾元三年四月丁巳, 有彗星於東方, 『신당서』)", "조원 3년(760년) 윤4월 1일. 요성이 남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수 장이었다.(乾元三年 閏四月辛酉朔, 妖星見於南方, 長數丈, 『구당서』)"의 일자는 <도술가>가 지어진 경덕왕 19년(760년) 4월 1일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 주장이라 하겠다.

16) 융천사(融天師)와 월명사(月明師)는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과 소통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융천사(融天師)라는 말 자체가 '하늘을 녹이는 선사(禪師)'라는 말이고 월명사 또한 '피리를 불어 달을 멈추게 하는 신통력을 지닌 선사'였던바 동일한 속성을 띤 인물이라 하겠다.

17) 노래를 부른 후의 표현이 두 작품이 일치한다. <혜성가>는 '歌之星怪即滅'로 표현하였고, <도술가>는 '既而日怪即滅'로 표현하였다. 모두 '바로' 사라졌다는 것인데 노래의 '즉시적 위력' 또한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④의 공통점 중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③부분에 내재한 ‘이 두 노래에 구사된 주술성의 원리적 공통점’이다. <혜성가>의 ‘노랫말의 주술 메커니즘’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며 이제는 의견을 일치를 획득한 곳이 되어 있다. 의견의 일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점은 필자)

呪詞로서의 이 노래의 核心은 “길을 쓰는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에 있다. … “犯心大星”하고 있는 彗星을 三郎이 楓嶽에 오를 길을 쓸고 있는 별이라 斷言하고 彗星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星怪 아닌 별의 吉兆로 斷言하는 그 말이 星怪를 祓禳하리라는 呪意가 거기 있는 것이다.¹⁸⁾

‘災殃의인 現實을 愚昧한 人間의 잘못된 認識(僞)이라 보고, 人間認識의 逆이 事實(眞)이라 봄으로 現實을 否定하는 表現을 使用하고 있으며 또 災殃의인 現實 … 그런 事實의 出現을 否定하였다.¹⁹⁾

혜성가는 현재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災殃의인 것(日本兵來, 彗星犯心大星)을 ‘길쓸별’이나 ‘건달과성’이라는 언어표현을 하여 自然界와 人間界의 秩序를 모두 회복하고 있다. 달램(說祝)의 한 방법이다. … 기대한 바를 말하여 呪術하면 결과 또한 그대로 된다는 呪術心理가 담겨 있다.²⁰⁾

이 작품은 흥조로서의 혜성의 ‘無化’가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에 게 새로운 명명을 부여함으로써 길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²¹⁾

18) 김열규·정연찬·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7면.

19) 윤영옥, 「혜성가의 고찰」, 『영남어문학』 제4집(영남어문학회, 1977), 26면.

20) 이도훈, 「혜성가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52면.

21) 고혜경, 「혜성가의 시가적 성격」, 『향가연구』(국어국문학회 편, 1998), 248면.

분절	허상	실상
제1분절	왜군	건달파성
제2분절	혜성	길쓸별

22)

인용된 <혜성가>에 쓰인 주술의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혜성을 혜성으로 부르면 불길하니, 혜성을 '길 쓸 별'로 재언명하여 좋은 조짐으로 전환 시킴'이라 할 수 있다. 주술의 핵심이 '언어'²³⁾에 있다는 이 포착은 학계의 정론(正論)이라 할 수 있으며 본고 또한 이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본고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혜성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언급되어 온 위 주술의 메커니즘은 <혜성가> 연구에서만 단독적으로 적용되었을 뿐, <도술가>의 연구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융천사가 '혜성 [홍조]을 '길쓸별[길조]'로, '왜구[홍조]'를 '건달바가 놀던 성[길조]'로 재언명하여 주술적 성취를 달성했듯이, 월명사 또한 '일괴(日怪)'라는 홍조를 '미륵불'이란 길조로 재언명함으로써 전화위복을 하고자 했던 것을 <도술가> 연구에도 충분히 적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도술가>의 주술성을 이해해 왔던 것이다.²⁴⁾

이에 본고는 <혜성가>를 설명하던 '주술의 방식' 그대로를 <도술가>의 주술

22) 류수열, 「혜성가의 발상과 표현」, 『고전문학과 교육』 제4집(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2), 155면.

23) 김열규는 '斷言', 이도훈은 '기대한 바를 말하여 주술', 고헤경은 '새로운 명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혜성가>에 나타난 '언어의 힘'에 대한 동일한 포착이라 하겠다.

24) '말이 지닌 힘을 활용한 주가'란 관점에서 <도술가>가 주목받은 적은 있었다. 염은열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월명사는 노래를 통해 미륵좌주를 중심에 둔 평화로운 세상, 모든 갈등이 해소된 신라의 모습을 '불러들이고' 있다. ... 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미륵좌주가 下土한 세상을 실재하도록 만들고 있다.”(「향가의 실재와 믿음 형성에 대한 고찰-도술가, <제망매가>, <혜성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308면.)

정황에 대입해 보기를 제안한다. 두 설화는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만약 <혜성가>의 연구에 <도술가>의 정황을 대입하여 무리 없는 설명을 이룬다면 이 자체로 <도술가>가 '해'를 '미륵불'로 표현한 것은 개연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개연성'은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타진하기 위해 위 연구자들의 견해 중 일부를 <도술가>에 적용시켜 재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혜성가 <김열규 상계서>	도술가 <필자 재기술>
<p>呪詞로서의 이 노래의 核心은 “<u>길을 쓰는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u>”에 있다. … “<u>犯心大星</u>”하고 있는 <u>彗星</u>을 三郎이 楓嶽에 오를 길을 쓸고 있는 별이라 斷言하고 <u>彗星</u>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確言하고 있다. <u>星怪</u> 아닌 별의 <u>吉兆</u>로 斷言하는 그 말이 <u>星怪</u>를 祓禳하리라는 呪意가 거기 있는 것이다.</p>	<p>呪詞로서의 이 노래의 核心은 “(하늘에 나타난 해를) <u>미륵좌주(라고 부른 데)</u>”에 있다. … “<u>二日並現</u>”하고 있는 새로운 해를 <u>미륵좌주가 내려올 조짐</u>이라 斷言하고 (불길한 조짐의) 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u>日怪</u> 아닌 <u>미륵불이 나타난 해</u>의 <u>吉兆</u>로 斷言하는 그 말이 <u>日怪</u>를 祓禳하리라는 呪意가 거기 있는 것이다.</p>

혜성가 <이도흠 상계서>	도술가 <필자 재기술>
<p>혜성가는 현재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災殃적인 것(日本兵來, 彗星犯心大星)을 ‘<u>길 쓸별</u>’이나 ‘<u>건달파상</u>’이라는 언어표현을 하여 自然界와 人間界의 秩序를 모두 회복하고 있다. 달램(說祝)의 한 방법이다. … 기대한 바를 말하여 呪術하면 결과 또한 그대로 된다는 呪術心理가 담겨 있다.</p>	<p>도술가는 현재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災殃적인 것(二日並現)을 ‘<u>미륵불</u>’이라는 언어 표현을 하여 自然界와 人間界의 秩序를 모두 회복하고 있다. 달램(說祝)의 한 방법이다. … 기대한 바를 말하여 呪術하면 결과 또한 그대로 된다는 呪術心理가 담겨 있다.</p>

<혜성가>의 주술 기법에 <도술가>의 내용을 대입한 결과는 어떠한가. 만약 이 결과에서 큰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술가>의 주술성 또한 <혜성가>와 마찬가지로의 메커니즘을 가진 것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월명사가 주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흥조를 길조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 실천으로 ‘해’를 ‘미륵불’로 호명했을 개연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2.2.2. ‘두려운 계시(啓示)의 해석’ 등에서 보이는 개연성

월명사가 주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이일병현’을 ‘하생할 미륵불’으로 재언명했을 개연성은 여타의 주술적 일화들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류수열²⁵⁾이 <혜성가> 연구에서, “이들 점복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흉조로 짐작되는 문제적 사태를 오히려 길조로 해석하는 발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불행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인간은 그런 불행을 예언하는 흉조를 접하면 가급적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를 염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동원되는 하나의 방법이 의도적으로 흉조를 바람직한 상태를 예언하는 길조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논의의 폭을 확장해 두었듯이, 우리의 주술적 전통들에서 ‘흉조(凶兆)’를 ‘길조(吉兆)’로 재언명함으로써 ‘전화위복’하는 사례는 흔히 발견됨을 본다.

(가) 김주원은 꿈 중에 복두(幘頭)를 벗고 소림(素笠)을 쓰고 12현금(絃琴)을 들고 천관사(天官寺)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꿈에서 깨자 사람을 시켜 그것을 짐치게 하니, 말하기를 “복두를 벗은 것은 관직을 잃을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형틀을 쓰게 될 조짐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옥에 간헐 징조입니다.”라고 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심히 근심스러워 두문불출하였다. 이때 여삼이 와서 ... 해몽하기를 청하자 아찬은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거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소림을 쓴 것은 면류관(冕旒冠)을 쓸 징조이며,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권2, 기이, 원성대왕>

(나)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땅을 파게 하였다. 석 자 가량 파 내려 가니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라는 글이 있었다. 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이 말하기를 “동

25) 류수열, 『혜성가의 발상과 표현』, 『고전문학과 교육』 제4집(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2), 161면.

근 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기울며, 초승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가득 차지 못하면 점점 차게 된다.”고 하니 왕이 노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둥근 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요,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생각컨대 우리 나라는 왕성하여지고 신라는 차츰 쇠약하여 간다는 것인가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였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6월>

(다) 이때 한 늙은이가 연못 가운데서 나와 글을 바쳤다. 결봉의 제목에 이르기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기사가 돌아와 이것을 바치니,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느니 오히려 열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다.” 하였다. 일관이 나서서 말하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러하다고 여겨 열어보니 편지 가운데 “거문고 갑을 쏘라[射琴匣].”고 적혀 있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거문고 갑을 쏘았다. 그곳에서는 내전에서 분향 수도하던 승려가 궁주(宮主)와 은밀하게 간통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삼국유사』 권1, 기이, 사금갑>

인용된 위 사례 (가)²⁶, (나), (다)에는 모두 ‘계시에 의한 두려움, 불안감 (또는 극심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현상들이 제시되어 있다. (가)의 경우는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쓰고 12현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계시, (나)의 경우는 거북 등에 적힌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라는 계시, (다)는 연못에서 나온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란 계시가 나타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가), (나), (다)에는 이에 대한 두 해석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유인을 계시 형태로 제시한 후, 그것에 대해 ‘불길하게 여기는 해석’과 ‘길하게 여기는 해석’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들은 모두 두 해석 중 ‘길하게 여기는 해석’을 통해 전화위복을 이루

26) (가) 사례는 유수열의 상계서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제시한다.

고 있다. (가)는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거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이며,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란 해석을 택하고 있고, (나)는 “등근 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요,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는 왕성하여 지고 신리는 차츰 쇠약하여 간다는 것인가 합니다.”라는 해석, (다) 또한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는 해석을 택한다.

이들은 비록 ‘주술의 노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주술성을 띠고 있는 신라인의 일화라는 점에서 <도술가>의 주술 기법을 분석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들에게서 보이는 공통 구조는 <도술가>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음을 본다. <도술가>에 제시된 ‘계시(啓示)적 현상 - 이일병현’은 (가), (나), (다)의 꿈 또는 계시적 글귀에 대응되고, <도술가>에 나타난 ‘흉조로서의 이일병현과 왕의 근심’은 (가), (나), (다)에서 보이는 ‘흉조로 여기는 첫 해석들과 왕들의 근심’에 대응된다. 그리고 <도술가>에 나타난 월명사의 ‘해는 길조로서, 바로 미륵불’이라는 긍정적 재해석은 (가), (나), (다)에 나타난 ‘길조로서의 재해석’에 대응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두려운 상황에 봉착’한 신라인들의 대응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²⁷⁾ 그들은 재언명이라는 주술적 메커니즘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도모했고, 이를 통해 전화위복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문화적 정황을 감안할 때, <도술가>의 월명사가 택할 ‘주술 메커니즘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고의 가정 - 월명사는 이일병현이라는 흉조를

27) 물론 이러한 대응 메커니즘이 신라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류수열의 상계서의 또 다른 예시, 태조 이성계가 꿈 ‘서까래 三 장을 지고 나온 꿈’ 또한 동일한 메커니즘의 산물이다. 이런 언명을 통한 상황의 전도 방식은 근래의 민요 “황새야 독새야 / 내 모가지 길고 / 니 모가지 짜르다” 등에서도 보이는데, 이재선(『신라향가의 어법과 수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78면.)은 이런 표현을 ‘상황을 전도시켜 버린 Irony, 주관적인 전도에 의한 아이러니라 표현한 바 있다.

미륵불이라는 길조로 재언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 은 보다 강한 개연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 '재언명'의 주술 기법의 구사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전히 단정할 수 없지만, 신라인의 주술 성향이 거듭 예증해 주고 있듯이, 월명사가 이러한 주술의 일반 패턴을 활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하겠다.

2.3. 미륵과 해의 불가적(佛家的) 인식 측면

위에서 이 노래와 <혜성가>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두 승려들이 '상황의 긍정적 재언명'을 통해 주술성을 획득했을 개연성을 제시하였다. <혜성가>에서 '혜성(彗星)'을 '길 쓸 별(道尸掃尸星)'로 풀이함으로써 '흉조(凶兆)'를 '길조(吉兆)'로 전환시켰듯이, <도술가> 또한 '해'를 '미륵불'로 풀이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의도했을 높은 개연성도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혜성가>에서 '혜성'이 '길 쓸 별'로 재언명될 수 있었던 것은 '혜성'이 '길 쓸 별'과 연관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관된 속성이 전혀 없는 대상들끼리는 재언명이 성립할 수 없다.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혜성이 '길 쓸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彗'字가 지닌 뜻 때문이었다. 彗는 '丰(붕, 풀이 무성한 모양의 상형자)'들을 잡은 彗(한자에서 주로 손을 뜻하는 형태소로 쓰이는 자)의 결합으로써 원래부터 '빗자루'를 나타내던 글자였다. 혜성이란 것은 생김새가 '하늘을 빗자루처럼 쓸고 지나가는 듯한 별'이기에 빗자루라는 뜻을 지닌 彗를 사용하여 '彗星'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혜성이 불길한 것이라고 본 것은 당대의 문화적 관습일 뿐, 원래 그 말이 지닌 본질적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혜성'이라는 것은 이쪽 근거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적절한 다른 근거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인 것이다. 이 점에서 혜성을 '길 쓸 별'로의 재명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위의 꿈·계시의 문구 해석과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하면서도 두 가지 상반된 풀이들이 충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풀이들 또한 해석에 대한 재언명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실체’와 전혀 동떨어진 것들은 아니었다. 가령 전술한 (나)의 사례에서,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라는 계시의 문구를 풀이하는 방식은 부정적으로 보아 “둥근 달은 기울며, 초승달은 점점 차게 된다”라고 하든, 긍정적으로 보아 “둥근 달은 왕성하고, 초승달은 미약하다”라고 하든, 해석의 대상과 최소한의 연관성은 지닌 채 해석, 재언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두려움 실체’를 재언명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실체와 일정한 연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최소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해’를 ‘미륵’이라고 표현한 <도술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까? 우리가 계속 추정해 오듯이 월명사가 ‘해’를 ‘미륵불’로 재언명한 것이 맞다면 위 <해성가>와 주술 일화들에서 보이듯이 ‘해’와 ‘미륵불’은 근본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 이 조건 또한 합치한다. 미륵과 관련된 경전인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대성불경』 등을 보자면 ‘미륵’은 해·광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묘사되어 있다. 아래는 그 단적인 예들이다.

(가)	
미륵불의 태양이 나타날 때	佛日出時
진리의 우로 내리니	降法雨露
세간의 눈들이	世間眼目
이제야 열리네.	今者始開 ²⁸⁾

(나)	
한 마음 가다듬고 자세히 들으라.	一心善諦聽

28) 경전연구모임, 『미륵대성불경』,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대성불경』(불교시대사, 1996), 91면.

광명과 큰 삼매와	光明大三昧
비할 데 없는 공덕 갖춘 이가	無比功德人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正爾當出世

(가)는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미륵불이 도솔천에서 나와 설법할 때 사천왕들이 미륵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미륵’은 ‘해’로 은유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책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것으로, 세존이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불의 출현 상황에 대해 예견하며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도 미륵이 인간 세상에 모습을 나타낼 때는 ‘광명’을 수반하여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월명사가 ‘해’를 ‘미륵좌주’로 재언명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왕과 민중들은 ‘해’의 불길한 면을 주목하여 두려워하였지만, 월명사는 오히려 미륵 신앙의 깊숙한 문화 속에서 ‘해’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여 그를 ‘미륵불’이라고 단정적으로 재언명함으로써 주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미륵’과 ‘태양(광명)’의 관계는 미륵경들에서 관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제시한다.

“미륵불의 태양 세상에 나타날 때 감로를 내려주시니 세간의 눈들이 이제야 열리네. (佛自出世, 降注甘露, 世間眼目, 今者始開, 有緣之者, 皆悉聞知)” (경전연구모임, 앞의 책, 91면.)

“미륵불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도 도솔천 궁전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큰 광명을 비치어 더러운 것들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리라. … 몸에서 황홀한 광명이 흘러나와 마주 쳐다볼 수도 없을 것이니, 이는 사람도 하늘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이니라. … 털구멍마다 한없는 광명이 비치는데,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해 달과 별, 저 하늘의 해, 불과 구슬의 빛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마치 티끌처럼 하찮게 보이느니라. (彌勒託生以爲父母, 雖處胞胎如遊天宮, 放大光明塵垢不障 … 光明晃耀不可勝視, 諸天世人所未曾覩 … 不可思議毛孔光明, 照耀無量, 無有障礙, 日月, 星宿, 水火珠光, 皆悉不現, 猶如埃塵)” (경전연구모임, 앞의 책, 78~79면.)

2.4. '호명 - 명령'계 주술가가 지닌 구조적 측면

<도술가>의 주술이 <혜성가>와 마찬가지로 '재언명'의 원리를 통해 주로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앞에서 제기한 바 있다. 그간 별개로만 주목받던 <혜성가>의 주술 원리를 <도술가>에 전격적으로 대입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혜성가>의 주술 원리가 <도술가>에 적용되지 못하고 별개로 진행되었던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선학들은 일찍이 <도술가>의 주술적 원리의 핵심을 <구지가>류의 주술 원리를 원용해 확보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³⁰⁾

선학들은 <도술가>의 주술성은 다음과 같은 '호명 - 명령'의 구조, 그리고 '주술 매개체의 존재'에서 생겨난다고 이해해 왔다. 연구사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진술은 <도술가>의 주술성과 그 연원에 대한 요약이라 하겠다. (방점은 필자)

① 이 노래의 樣式은 完全히 呪詞的의이다. 직접 龜旨歌의인 傳統에 脈을 대고 있는 呪歌인 것이다. ... 이 꽃이 呪術이 걸려지는 對象인 것이다. ... 그것은 呪術媒介物인 것이다. ... 兜率歌는 日怪의 발양(exorcism)이라는 그 效驗에 있어서만 呪歌인 것이 아니라 그 樣式에 있어서도 依然히 呪歌인 것이다. 이에서 彌勒座主에의 歸依가 或은 信心이 꽃呪術에 對한 呪歌의 行爲를 통해 表象되어 있다고 보면 이 兜率歌의 複合性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³¹⁾

② 이 노래는 ... 時代的 狀況의 變遷에 따라 佛教의 觀念이 混融되기는 하였으나 在來의인 樣式이 그대로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威嚇的인 모습은 人心의 順化, 表現의 婉曲으로 사라졌으나 命令法이라는 것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古代의 祭儀에 사용되던 呪歌의 痕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³²⁾

-
- 30) 어쩌면 이 정황이 <혜성가>에서 보이는 주술의 원리가 <도술가>에 적용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31)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김열규·정연찬·이재선 공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3면.
- 32) 윤영옥, 『한국고시가의 연구』(형설출판사, 1995), 90~91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호명 - 명령’의 주술 구조가 <도술가>와 <구지가>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주술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구지가> 류의 주술(呪術) 구조를 표로 요약하여 보인다.

	<구지가>(『삼국유사』)	<석척가>(『태종실록』 ³³⁾)
호명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	도마뱀아 도마뱀아 (蜥蜴蜥蜴)
명령	머리를 내어라! (首其現也)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라! (興雲吐霧)
가정	내놓지 않으면 (若不現也)	비를 주룩주룩 오게 하면 (降雨滂沱)
대가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너를 놓아 보내겠다. (放汝歸去)

위의 표에 방불하는 ‘호명’과 ‘명령’의 주술 구조가 <도술가>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본다.

호명 : 오늘 여기에서 산화가 불러 돋워 올린 **꽃아!**
 명령 : 너는 곧은 마음의 명 받들어 미륵불을 **모셔라!**

이외, 호명의 대상 - 이른바 주술 매개체 - 을 통해서도 <도술가>와 전통적 주술 가요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구지가>류의 ‘거북·도마뱀’은 지상의 소망을 천상에 닿게 하는 주술 매개체로 볼 수 있는데, <도술가>에 나타나는 ‘꽃’ 또한 ‘땅에서 올려보내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선학이 지적한 바대로 여타 주술 가요에 있는 ‘위협적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지상과 천상의 매개체를 설정하고 이를 호명하고 명령함으

33) 置盛水二甕於庭 捕蜥蜴納之甕中 設席焚香 令童男二十人衣青衣 持柳枝祝曰 “蜥蜴 蜥蜴 興雲吐霧 降雨滂沱 放汝歸去”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1407년) 6월 21일 계묘(癸卯))

로써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공통점을 지닌바, <도술가>는 분명히 그러한 주술 가요의 전통 범주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래의 주술 가요의 구조에 기반하여 <도술가>를 분석할 때에도, 월명사가 ‘해’를 ‘미륵불’로 보고 있음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구지가>류 주술 가요는 조처가 필요한 상황 - 수장(首長)의 부재·강우(降雨)의 부재 - 에서 촉발되어, 거북·도마뱀 등의 주술 매개체를 동작하게 하여 바람을 성취하고 있는데, ‘해=미륵불’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도술가> 역시 그 구조에 잘 부합하고 있음이 보인다. 조처가 필요한 상황은 ‘미륵불의 출현’이라 할 수 있고, 주술 매개체는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주술 매개체의 동작은 ‘미륵불을 모심’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된다.

	구지가	석척가	도술가
조처가 필요한 상황	군왕의 부재	물의 부족	미륵불의 출현
주술 매개체	거북	도마뱀	꽃
주술 매개체가 요구받는 동작	머리를 출현 시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포함.	미륵불을 모심.

<구지가>류 주술가요(呪術歌謠)와 <도술가>의 세부 구조표

이 구조표에서 볼 때, 전래 주술가요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과 ‘주술 매개체가 요구 받는 동작’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수장(首長)이 부재했던 <구지가>의 상황에서 거북은 ‘머리(왕)를 내밀라’고 요구받고, 물이 부족했던 <석척가>의 상황에서 도마뱀은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라’고 요구받는다. 두 경우 모두 주술 매개체는 상황의 해결에 ‘즉각적 도움’이 되는 행위를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는 <도술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 다른 해’가 출현하자 사람들은 불길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월명사는 이를 바로

‘미륵불의 출현’으로 새로이 인지한다. 그러면서 그 전대미문의 특이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주술 매개체 ‘꽃’을 통해 명령한다. 그 명령의 내용은 ‘그를 모셔오라’이다. 다른 주술가와 마찬가지로 월명사는 꽃을 ‘상황의 해결에 즉각적 도움이 되는 동작’을 수행하는 매개체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해와 미륵불을 이원화하여 보는 통설 - 해는 없애야 하는 것, 미륵불은 없애는 주체 - 에는 이 ‘호명 - 명령’의 주술 구조가 잘 들어맞지 않음을 본다. 다시 표로 검토해보자.

	구지가	석척가	도술가 (통설)
조처가 필요한 상황	군왕의 부재	물의 부족	불길한 해의 출현
주술매개체	거북	도마뱀	꽃
주술 매개체가 요구받는 동작	머리를 출현 시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포함.	미륵불을 모셔와 불력을 빌어 해를 없앴

<구지가>류 주술가요와 <도술가>의 세부 구조표

표에서 보이듯이 통설에 따라 짝 <도술가>의 구조는 <구지가>류의 주술 구조와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발생한다. ‘해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술 매개체인 꽃은 ‘해를 없애 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뜻밖에, ‘미륵불을 모셔오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미륵불을 모셔오면 나중에 미륵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는 도움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미륵의 출현 → 미륵불을 모셔라’로 보는 것에 비해서는 가정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통설에 따라 짜 볼 때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한다. 결국 해를 없앴 것은 ‘꽃이 모셔온 미륵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일병현’의 변괴를 해결한 것은 ‘미륵불’이 되어 <도술가> 자체는 주술가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퇴색하게 된다.

<도술가>가 받던 다음과 같은 평가³⁴⁾를 감안할 때 상당한 격차가 느껴지는 해석이 됨은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하다.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한 것은 오래되었다. … **종종 천지의 귀신을 감동 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羅人尙鄉歌者尙矣. … 徃徃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술가>

결국 <도술가>를 ‘해=미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라야 이 작품이 지닌 ‘주술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때 ‘호명 - 명령’계 주술에 잠재한 주술 매개체의 역할에 부합하고, ‘이일병현’을 직접 해결한 주술가(呪術歌)로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술성과 관련된 <도술가>에 대한 평가 ‘천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感動天地鬼神者非一)’와도 잘 호응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결론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도술가>를 ‘해의 변괴를 없애는 목적을 지닌 주술가(呪術歌)’로 보는 통설에서 우리는 ‘해’와 ‘미륵불’을 이분(二分)하여 ‘해’는 없애야 하는 것, ‘미륵’은 그 행위의 주체자로 이해해 왔다.

둘째, 본고는 이 통설에 이견을 제기하였다. 몇 측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새로운 해’와 ‘미륵불’은 동일한 존재의 이칭(異稱)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서사 문맥으로 볼 때, “노래가 불리자 하늘의 괴변이 사라졌다”라고

34) 향가 전체에 대한 평가로 볼 수도 있지만, <도술가>의 마지막에 부기(附記)되어 있는 것이기에 <도술가>에 대한 평가로도 유효할 듯하다.

하는데, '노래'와 '괴변의 해소'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느껴지지 않아 '미륵불'의 하세(下世)와 불력(佛力)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넷째,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 등에는 미륵을 광명(光名)과 함께 묘사하는 부분이 많고 때로 '해'로 은유하기도 하는데 이 점으로 월명사가 '해'를 미륵불로 표현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도술가>는 <혜성가>와 대표적인 주술 향가로서 거의 동일한 서사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괴변의 발생 → 노래 구사 → 변괴 해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혜성가>의 가장 주된 주술 메커니즘은 '혜성'을 '길 쓸 별'이라고 재언명(再言明)하는 것이었다. 즉, 흉조(凶兆)를 길조(吉兆)로 인지하여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도술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일병현(二日並現)'이라는 흉조를 미륵불의 하세라는 길조로 재언명한 것이 <도술가>일 개연성이 있다.

여섯째, 흉조를 길조로 재해석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한 신라인의 사례는 많은데, 월명사 또한 그 문화의 자장(磁場) 속에 든 인물이므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적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불길한 현상을 해소할 가장 공인된 방식 중의 하나인 '재언명(再言明)'을 활용하여 '하늘의 해'를 '미륵불'로 재언명한 것은 필연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나라에 닥친 엄중한 상황과 해소의 책임을 맡은 월명사가 택할 수 있는 주술 방식의 선택지를 생각해 볼 때,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그간 우리는 <도술가> 주술의 핵심을 '호명과 명령' 그리고 '꽃'이라는 주술매개체의 관점에서만 파악해 왔다. 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조 속에서 볼 때도 월명사는 '해'를 '미륵불'로 간주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구지가>와 <석척가>에서 '거북, 석척'에게 문제 상황 해결에 필요한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명(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술가>에서도 '꽃'에게 '해를 없애 달라'라는 내용의 명(命)을 했으리라 짐작되는데 그 명이 구체적으로는

‘미륵좌주를 (하계로) 모셔라’로 표현되어 있는바, ‘해=미륵좌주’가 성립함을 보는 것이다. 결국 <도술가>에서 재언명의 주술 원리는 소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작품은 두 가지 주술 원리가 모두 들어 있는 주술가라 규정할 수 있다.

여덟째. 결국, <도술가>의 행간(行間)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읽힌다.

항가	한역시
(하늘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해는 下生하려는 미륵불이로다) 오늘 여기 산화 불러 (미륵불이 나타나신 하늘로) 복돋워 올린 꽃아! 너는 꿈은 마음의 명을 받들어 미륵좌주를 모셔라!	(하늘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해는 下生하려는 미륵불이로다)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龍樓此日散花歌 (미륵불이 나타나신)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挑送青雲一片花 은근하고 중한 꿈은 마음의 시킨 바이니 殷重直心之所使 멀리서 오는 미륵불을 맞이하라. 遠遶兜率大傳家

참·고·문·헌

■ 자료

경전연구모임, 「미륵대성불경」,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대성불경』, 불교시대사, 1996, 83면.

일연, 『삼국유사』(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를 참조함.)

■ 저서 및 논문

경전연구모임, 「미륵대성불경」,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대성불경』, 불교시대사, 1996, 83면.

고혜경, 「혜성가의 시가적 성격」, 『향가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1998, 248면.

김동욱, 「兜率歌研究」, 『國語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40~41면.

김열규·정연찬·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7면.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김열규·정연찬·이재선 공저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3면.

류수열, 「혜성가의 발상과 표현」, 『고전문학과 교육』 제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2, 155면.

서영교, 「월명사 도술가와 할리혜성」, 『九山論集』 제9집, 보조사상연구원, 2004, 23면.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고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197면.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24면.

염은열, 「향가의 실재와 믿음 형성에 대한 고찰-〈도술가〉, 〈제망매가〉, 〈혜성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308면.

윤영옥, 「혜성가의 고찰」, 『영남어문학』 제4집, 1977, 26면.

_____, 『한국고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5, 90~91면.

이도흠, 「도술가와 화엄사상」, 『한국학논집』 제1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98면.

_____, 「혜성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52면.

장진호, 「도술가고」, 『어문학』 통권 50호, 한국어문학회, 1989, 274면.

정상근, 「도술가 연구」,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시가작품론』 권1, 집문당, 73면.

황병익, 『신라향가 천년의 소망』, 역락, 2020, 432면.

논문 투고일 : 2020.12.31 심사 완료일 : 2021.01.22 게재 확정일 : 2021.01.25

Abstract

A review on the way of magic in “*Dosol-ga*(兜率歌)”

Park, Jae-min

This paper is the result of discussing the background story of Wolmyeongsa(月明師)'s “*Dosol-ga*(兜率歌)” and discussing the magical method of this song. As you may know, this work is a song sung to solve the transformation of the ‘two suns’ that appeared in the sky. According to the background story, when this song was sung, the transformation of the sky disappeared. Existing research has paid attention to this point and regarded this song as a representative song of ‘with magical properties’, and the origin of magic has been found only in traditional magic such as “*Kuji-ga*(龜旨歌)”. They paid attention to the method of commanding after calling the medium of magic.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story of “*Dosol-ga*” in more detail, and infers that the shamanism of this work is achieved not only by the “*Kuji-ga*” style magic method, but also the “*Heyseong-ga*(彗星歌)” style restatement magic. In other words, this song is a song reaffirmed that the additional sun in the sky is not ‘an ominous sign of disaster’, but ‘a good sign of Maitreya Buddha’s coming down’. And it turned disaster into a blessing by welcoming Maitreya Buddha(彌勒佛) through such a restatement.

That was embodied by utilizing the strong circumstantial intimacy of the song and the song. In “*Heyseong-ga*”, we can see the new interpretation the ‘bad sign of a star’ as a ‘star to clean the road’. “*Dosol-ga*” also has new interpretation the ‘Sun of Bad Symptoms’ as ‘Mireukjwaju’. Therefore these two works are likely to be the same type of magic. In addition, the magic of reinterpretation seen in dream interpretation was also taken as evidence. In conclusion, “*Dosol-ga*” is a magical song that calmed down the sense of crisis in Silla(新羅) society by restating ‘the crisis of two suns appearing’ as ‘a good sign of Maitreya coming down’.

Keywords

dosol-ga, hyeseong-ga, hyeseong, comet, incantation, rename, wolmyeongsa, yungcheonsa